

기획 · 제작 중심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첫 시작으로 전북CBS오케스트라와 협약... 클래식 공동 공연 등 기획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관장 박진호)이 단순한 공연장 대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기획 · 제작 중심의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삼성문화회관은 지난 18일 민간 예술단체인 전북CBS오케스트라(지휘자 김재원)와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연 콘텐츠를 단순히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이 클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공동 기획 ·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22일 클래식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북CBS오케스트라 단원의 60% 이상이 전북대 음악학과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관 간 연계가 아닌 대학-동문-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문화 생태계 모델로 주목된다.

한편 삼성문화회관은 지난해 대공연장을 전면 리모델링하며 노후 인프라를 현대화했고,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삼성문화회관은 지난 18일 민간 예술단체인 전북CBS오케스트라와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까지 소공연장인 건지아트홀의 개보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단체들과의 협업 기반 공연 제작을 본격화하며, '기획 · 제작 중심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박진호 삼성문화회관장은 "공연장 리모델링

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를 정비했다면, 이제는 콘텐츠와 파트너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시점"이라며 "전북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의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꾸준히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맛의 도시 전주’ 외국인도 사로잡다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 외국인 체험 비율 상반기 36%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조리체험 전문 공간인 '조리체험실'의 2025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577명의 체험객 중 외국인 관광객이 919명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9.9%, 2023년 36%, 2024년 33%를 기록한 외국인 체험 비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치로, 전주의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꾸준히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음을 보여준다.

21일 재단에 따르면 전통문화팀이 운영하는

조리체험실은 전통음식과 한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체험 공간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재방 문율이 78%에 달할 만큼 내외국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전주의 고유한 식문화를 보고, 듣고, 만들고, 맛보는 '살아있는 음식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한옥마을 내 한벽문화관 조리체험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30명 규모의 소규모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으로, 최대 18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우진문화재단, 토크콘서트 in 담쟁이 개최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토크콘서트 in 담쟁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과 지역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크콘서트 in 담쟁이'는 갤러리 공간을 중심으로 미술 · 음악 · 문학을 아우르는 다원(융합) 장르 공연과 토크콘서트를 결합한 행사다. 이번 콘서트의 대주제는 '농부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로, 대중적 인문강연으로 잘 알려진 이창용 도슨트가 강연을 맡는다.

먼저 1부에서는 이창용 도슨트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관객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대화가 이어져 참여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성현이 출연,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인천국제공항서 태권도 시범공연 펼쳐

태권도진흥재단-인천국제공항공사, 협약... 9월 13일까지 매주 금 · 토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위대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친다.

지난 18일과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동편광장'에서는 태권도 기본 기술을 응용한 자유 퍼포먼스 '위대한 태권도' 시범공연이 펼쳐지며 출국을 앞둔 내외국인들에게 태권도 매력을 선보였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난 11일, '태권도 공연 세계화'와 '차별화된 문화 예술 경험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동편광장에서 '위대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



대한 태권도' 시범공연에 이어, 오는 9월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인천공항 태권도 시범 공연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공연단 구성에 있어 선발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지속 선보일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주=전문성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한예중 양정무 교수 초청 특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국내 대표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해 3주만에 걸친 서양미술사 특강을 종료했다.

'화폭에 담긴 비밀: 서양미술사 편'이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총 세 차례 진행된 이번 강의는 화차마다 서로 다른 테마로 깊이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예술 인문학의 장을 펼쳤다.

양정무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벌거벗은 미술관', '그림 값의 비밀'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미술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강은 '풍경화로 읽는 서양미술사', '프랑스 파리와 현대미술의 탄생', '현대 추상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적 풍경화부터 시민혁명과 산업혁



명을 거치며 발전한 도시 풍경화, 나아가 전쟁과 사회변동 속에서 등장한 추상미술과 동시대 미술까지 인류사의 주요 전환점을 중심으로 미술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양 교수는 "미술은 인류의 삶의 방식과 밀접히 조응하고 그 변화에 반응하는 예술"이라며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은 곧 인간의 생존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JB인문학 강좌 100회 맞아 정재찬 교수 초청 특별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7일 우석고등학교에서 '2025 JB인문학 강좌' 100회를 맞아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0회 강자는 그간의 발자취를 기념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시 소들리에'로 불리는 정재찬 교수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을 주제로 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정재찬 교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감정과 순간들을 시를 통해 다시 바라보게 하며, "인생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작고 사소한 감정들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인의 감수성과 교육자의 진심이 어우러진 강연은 학생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